

교과서와 함께 읽어오

- 5학년 사회 관련 도서

이번 호 교과관련도서는 5학년 사회입니다. 5학년 사회는 1-2학기에 걸쳐 우리 역사를 다루고 있어 그와 관련된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역사책을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만화책은 따로 분류하였습니다. 각 단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역사 입문기** - 우리 역사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
- ◆ **역사 도약기** - 우리 역사를 전체적인 흐름순으로 정리하여 역사의 맥을 짚을 수 있도록 구성한 책
- ◆ **역사 심화기** - 우리 역사를 좀 더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구성한 책
 - ※ 시리즈의 발행년도는 최초 저술한 책의 출판년도를 적었습니다.
 - 우리역사책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 2호 발행이 늦어졌습니다.

우리역사-만화

	만화 한국사 바로보기 (전10권)/이현세 만화/김미영 글/녹색지팡이/2004		KBS 만화로 보는 역사스페셜(전4권)/KBS역사스페셜 편집/하승남 그림/아침이슬/2002
	이이화 선생님이 들려주는 만화 한국사 (전9권)/이이화 원작/김영훈 구성/서석근 그림/삼성출판사/2010		맹꽁이서당 (개정판) (전 15권)/윤승운 글·그림/웅진주니어/2008

☆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 폭력 관련 도서를 추천합니다.

학교 폭력 관련 도서

서지사항	책소개
(왕따와 학교 폭력 이겨내기) 작전1호 캐서린 드피노 글/이태영 옮김/해솔출판사/2007년	학교 폭력을 고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꼭 읽어야 할 도서이다. 폭력을 당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혼자 공포에 떨고 있다. 주인공 스티브의 부모는 폭력을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알려주면서 함께 동참한다. 아이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폭력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된다. <저학년부터>
폭력 싫어요 도미니크 드 뽁 마르 지음/김태희 옮김/세리주 불로흐 그림/푸른숲/2004	세계어린이 인권학교 시리즈(학대, 폭력, 차이, 성폭력) 중 인권으로 폭력이란 무엇인지,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폭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여러 상황들을 보여주고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마주 한다면 폭력을 이겨내고 또 다른 폭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저학년부터>
폭력은 싫어! 엘리자베스 켈러 글/신민재 그림/배수아 옮김/주니어 김영사/2007	각 장마다 서로 다른 다섯 명의 아이들이 친구들의 과한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해결 방법은 비슷하다. 먼저 스스로 자신감과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만큼은 굉장히 사실적이지만, 유쾌하고 훈훈한 결말을 이끌어가고 있다.<중학년부터>





교과서와 함께 읽어오

- 5학년 사회 관련 도서





우리역사-입문기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 한국사/청동말굽 지음/이규옥 그림/조선북스/2011 * 시리즈로 다리, 문, 비석이 들려주는 이야기 한국사가 있음		역사스페셜 작가들이 쓴 이야기 한국사 (전50권)/권기경 지음/윤정주 그림/한솔수북/2007
	역사 속으로 송송(전10권)/이문영 지음/토도북/2008		역사일기(전7권)/조호성 외 글/김병하 외 그림/사계절/2009

우리역사-도약기

	박영규 선생님의 우리역사 깊이 읽기 (전10권)/박영규 글/최상규 그림/주니어김영사/2005		한국사 편지(전5권)/박은봉 지음/책과함께어린이/2009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편지(웅진주니어)를 개정판 것임
	마주보는 한국사 교실(전4권)/오강원 지음/서영아 외 그림/웅진주니어/2008		이야기 보따리 한국사/소와역사연구실 지음/안지혜 그림/소와당/2010

우리역사-심화기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개정판)(전2권)/전국역사교사모임 지음/휴머니스트/2002		상위 5%로 가는 역사탐구교실/사회탐구총서편찬위원회 지음/스콜라/2008
	통통 한국사(전5권)/문정옥 외 글/강화경 외 그림/휴이념/2009		내일을 읽는 토론학교 : 역사/이인석 외 지음/우리학교 2011

서지사항	책소개
내가 친구를 괴롭혔다고 트루디 루디위그 지음/베스 애덤스 그림/오영나 옮김/고래이야기/2011	친구를 왕따 시키던 케이티는 학교와 가정의 도움으로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왕따'에 대한 자신의 일기장을 책으로 만든다. 케이티의 책에는 피해자와 방관자 그리고 가해자 모두의 심리상태를 다루고 올바른 변화를 이끄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재미있는 삽화는 부담 없이 책을 읽게 한다. 저자는 왕따 문제에 대해 오래 연구한 사람이다. 그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지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중학년부터>
너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 마이크 캐시디 지음/이성우 옮김/다른/2012년	중학교 신입생 빌리와 베스는 초등학교와는 사뭇 다른 중학교 생활에 힘들어 한다. 그 중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폭력! 학교 폭력을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책 뒤편의 꾸러미 제본 된 별책부록은 '학교폭력 없는 평화학교 만들기'를 통해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줄리엔 캐릭터에 만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읽기도 쉽다. <고학년부터>
싫다고 할걸 그랬다 아니카 토어 지음/조현실 옮김/파랑새/2007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싫어도 해야 하는 행동, 내 친구가 나 말고 다른 아이와 친한 것에 질투를 느끼는 마음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인공 노라는 친한 친구 사비나와 다시 어울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화니 주변 인물들과 얽히게 되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카린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싫다고 할걸 그랬다' 노래의 후회와 가슴에 와 닿는다. <고학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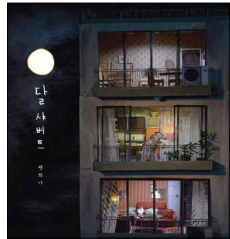


저자 백희나는 1971년에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공부했다. 공부를 마친 뒤에는 어린이를 위한 시디롬을 개발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고 현재 애니메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큰턱할미랑 큰눈할미랑 큰이할미랑'을 시작으로 어린이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개성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애쓰고 있다. 두 번째 그림책 '구름빵'은 반입체 기법으로 비 오는 날의 상상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교보문고)

그림책작가, 인형장난전문가, 애니메이터. 그리고 박흥비 박범준의 바쁘고 정신 없는 엄마. 구름빵, 팔죽할머니와 호랑이, 북풍을 찾아간 소년, 분홍줄 등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소개한 글)

달샤베트로 더위를 이겨 볼까?

(달샤베트/백희나 지음/스토리보울/2010년)



책을 펴서 읽으면 “구름빵”과 같은 저자임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 백희나의 두 번째 창작 작품이다. 제목만 보았을 때는 이 책이 환경문제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은 책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민감하고 무거운 주제를 참 예쁘게도 다루었다. 지구는 자꾸만 더워지고 더위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냉방기를 돌려대더니 결국은 달이 녹아내리고 전기마저 더 이상 쓸 수 없어 어두운 세상이 된다.

그러나 더위를 참고 냉방기를 켜지 않던 늑대할머니가 녹아내리는 달을 받아 얼려 달 샤베트를 만든다. 늑대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달샤베트를 나누어 주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더 이상 냉방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더위를 이길 수 있게 된다.

작가의 특기인 종이인형을 만들어 사진 작업을 한 그림들이 마치 인형극을 보고 있는 착각이 들게 한다. 게다가 달이 녹아 살 곳이 없어진 옥토끼의 출현과 달맞이꽃으로 대변된 자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 또한 신선하다. 밝은 달 아래서, 반딧불 밑에서 책을 읽었던 우리 선조들의 그 시절이 잠시 생각나기도 한다.

읽기 포인트

- 환경보호 관점에서 공기를 인쇄를 한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어야 함.
- 그림 하나하나를 세트와 종이인형을 만들어 촬영함.
- 각호마다 집안을 살펴보는 재미가 있음.
- 스토리보울 출판사의 홈페이지에서 제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
-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음. (http://storybowl.com/category/working_note)

아이들 반응

- 갈 곳이 없어 늑대 할머니를 찾아온 옥토끼 모습이 정말 귀엽다.
- 달이 녹지 않게 전기를 아껴야겠다.
- 달샤베트는 어떤 맛일까? 한번 먹어보고 싶다. 샤베트 맛있겠다.

같은 주제 다른 책 - 환경	
★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 유다정 글 / 박재현 그림 / 미래아이 / 2008	
★ 북극 공의 집이 녹고 있어요 / 로버트 E 웰스 글 / 김명남 옮김 / 시공주니어 / 2010	



어제 저녁/백희나/스토리보울/2011



구름빵/백희나/한솔수북/2011

고양이가 병아리의 엄마가 된다고?

(빼약이 엄마/백희나 지음/스토리보울/2011년)



표지부터 피식 웃음이 난다. 고약하고 포악해 보이는 똥똥한 고양이와 작고 귀여운 병아리 빼약이의 엄마라니...이 고약한 고양이의 특기는 양육 몰래 양육의 일을 주워먹기이다.

어느 봄날 아침, 악명 높은 고양이 니양이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낳은 달걀을 먹고 병아리를 낳게 된다. 구름으로 빵을 만들고 달로 샤베트를 만드는 백희나 작가다운 풍부한 상상력과 기막힌 발상의 전환이다. 수박씨를 미처 발라내지 못하고 삼키고 난 후 뱃속에서 수박이 자랄까봐 울상이 되었던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니양이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병아리가 주는 따스함에 행복함을 느끼고 빼약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가족이 생기면서 니양이는 병아리를 품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얼핏 보면 고양이가 달걀을 먹고 병아리를 낳는다는 설정이 황당하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다. 이를 통해 다른 존재가 만나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작가의 메시지를 알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또는 혈연이 아닌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 빼약이 엄마를 통해 다르더라도 같이 모여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 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간결한 그림과 여백은 내용에 더 집중하게 하고, 목탄을 사용한 터치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어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더 분명하게 전달한다.

읽기 포인트

- 작가의 전 작품과 그림을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음.
- 천적 관계인 고양이, 병아리가 그림책에선 가족이 된 것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읽기
- 앞면지에는 고양이 발자국만 뒷면지에는 고양이, 병아리 발자국이 같이 있음의 의미 파악하기

아이들 반응

- 고양이가 진짜 크고 무섭게 생겼어요.
- 엄마가 된 고양이가 착하게 변한 것이 신기해요.
- 고양이가 알을 먹고 병아리를 낳을 수 있어요? 고양이가 병아리를 낳은 게 웃겨요.

같은 주제 다른 책 - 가족의 의미	
★ 우리 가족 최고의 식사 / 신디위 마고나 글 / 이해인 역 / 샘터사 / 2008	
★ 오렌지 말 / 리우쉬공 글·그림 / 계수나무 / 2012	



모 윌렘스는 텔레비전 방송 작가로 데뷔하여 미국 유명 어린이 TV 교육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 등으로 에미상을 6번 수상했다. 대표작으로 2004년 칼데콧 아너상을 받은 『비둘기에게 버스 운전은 말하지 마세요!』가 있으며, 『꼬드 토끼』 2005, 『내 토끼 어딴어?』 2008로 같은 상을 수상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젊은 작가 중 한 명으로 현재 뉴욕에 살고 있다.
('모 윌렘스' 의 책에 있는 작가소개 참고)



꼬끼리와 꿀꿀이 시리즈 / 모 윌렘스/푸른숲주니어/2011



도시개와 시골 개구리 / 모 윌렘스/상상박스/2011



내 토끼가 또 사라졌어 / 모 윌렘스/살림어린이/2010



“그게 아냐!” …… “그래서 운거야.”

(정말 정말 한심한 괴물 레오나르도/원제 : Leonardo the terrible monster / 모 윌렘스 글·그림/고경아 옮김/웅진주니어/2007년)

레오나르도는 무섭지 않은 괴물이라서 다른 괴물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최고 겁쟁이를 찾아서 잔뜩 겁을 주고 나면 자신의 고민이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샘이라는 소년을 찾아낸다. 과연 레오나르도는 샘에게 겁을 주는데 성공할까?

책 읽어줄 때 고려할 점이 많은 책이다. 글자 수, 그림과 글자의 배치, 여백의 활용 등으로 주인공의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우선 첫 대목 “레오나르도는 정말 한심한 괴물이었어요.” 는 글자의 배열이 계단식이므로 아래로 갈수록 축 처지게 읽어 줘야 레오나르도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본문 중 글자 색이 다른 것은 강조해서 읽어야 듣는 재미를 살릴 수 있고 특히 이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샘이 온 이유를 말하는 장면은 단숨에 읽어야 실감이 난다. 샘의 이야기를 듣고 레오나르도 고민의 크기 만큼 얼굴 크기가 책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크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년 학생에게 스토리텔링용 도서로 적합하며, 자신의 장점이나 개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책 표지에 ‘자신감 없는 친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라는 문구가 쓰여 있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책이다.



아이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책

(비둘기에게 버스 운전은 말하지 마세요!/모 윌렘스 지음 /정희성 옮김/살림어린이/2009년)

비둘기는 왜 버스 운전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어린 아이들은 어른의 세계를 동경하고 어른이 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운전이다. 아마 어린 비둘기도 그런가보다.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감히 승용차도 아닌 버스를 운전하겠다고 하는 당찬 녀석이다. 운전사도 없는 버스 앞에서 비둘기는 운전을 하겠다고 떼를 쓴다. 때로는 잘 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하기도 하고 협상안을 내놓기도 하며 애걸복걸 애원하기도 한다. 그러다 결국 이성을 잃고 떼를 쓰고 만다. 과연 비둘기는 버스 운전을 할 수 있을까? 뒷부분에 반전이 숨어 있어 더욱 재미있는 책이다.

아이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부모에게 떼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협상안을 내놓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협박(?)을 하기도 한다. 그런 아이들의 심리를 여실히 그려내고 있는 책이다. 같은 비둘기가 나오는 또 다른 책이 있다. “비둘기를 늦게 채우지 마세요.” 에서는 밤에 자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강아지가 갖고 싶어요.” 에서는 갖고 싶은 것을 끝까지 갖고자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비둘기야, 핫도그 맛있니?” 에서는 ‘내 꺼’ 에 집착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모 윌렘스는 아이들의 심리를 아주 잘 나타내는 작가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책은 출판되자마자 미국의 각 북차트의 순위권에 들어선다. 또한 그의 그림은 배경 없이 화면 가득히 인물만 그려 넣어 인물의 표정과 움직임을 통해 독자가 많은 것을 읽어 낼 수 있게 한다. 또 한 가지, 그는 마치 가수 박진영이 자신이 만든 음악에 “JYP~~”라고 넣는 것처럼 전작의 등장인물을 꼭 한 군데씩 끼어 넣어 독자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잘 표현하여 어른에게는 미소를, 아이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공감하고 쾌감을 맛보게도 하는 책이다.

입기 포인트

- 책 읽으며 살피기: 토니 이빨 중에 금니 찾아보기, 엘리너가 여자일까 남자일까 생각해보기, 레오나르도처럼 무서운 표정 만들어서 지어보기
- 읽은 후 발문 : 레오나르도는 왜 자신을 한심한 괴물이라고 생각했나요?/샘처럼 화가 났는데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둔 적이 있나요?/내가 남들과 다른 점은?/남들과 다르지만 나만의 개성(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해봅시다.

아이들 반응

- 샘이 온 이유를 폭발시키듯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몰입도가 굉장하다. 책 읽은 후 활동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괴상망측한 괴물 그리기’ 를 하면 학년에 상관없이 즐거워한다.



입기 포인트

- 아이들과 역할을 나누어 대화하듯이 읽어보기.
-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의 등장인물을 찾아보며 읽어보기

아이들 반응

- 비둘기는 떼를 쓰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을 왜 모를까?
- 비둘기의 모습이 내 동생과 똑같다.

같은 주제 다른 책 - 자존감	
★ 귀없는 토끼 / 클라우스 바움가르트 글 / 털 슈바이거 그림 / 김영진 옮김 / 아이세움 / 2010	
★ 치킨 마스크 / 우쓰기 미호 지음 / 장지현 옮김 / 책읽는 곰 / 2008	

북토크북은 서울초등학교 사서교사 6명의 연구모임입니다.
♣책의 표지 그림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다음 호는 8월 마지막 주에 발행될 예정입니다.